

【 P1-5 】

1998년도,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음식섭취 현황

문현경, 박정현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Analysis of dish intake in 1998 and 2001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Moon Hyun-Kyung, Park Junghyu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가 더 이상 낮설지 않을 만큼 식생활의 전반적인 패턴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라는 문제도 동반 야기되고 있으나 최근의 식생활 변화를 반영하는 음식섭취 현황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98년, 2001년도에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음식 섭취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1998년도,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중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식품 섭취 및 식생활 조사에 참여한 1998년 10,400명, 2001년 9,968명이 섭취한 음식군별로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성별은 1998년도 전체 10,400명 중 남성은 4,984명, 여성은 5,416명이고, 2001년도는 전체 9,968명 중 남성은 4,460명, 여성은 5,208명으로 2그룹으로 나누었고, 연령별은 0~2세, 3~6세, 7~12세, 13~19세, 20~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의 8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경제수준별은 1998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수준균형방식에 의한 빈곤선을 이용하여, 상(각 기준의 두 배 이상의 수입), 중(빈곤선 이상과 각 기준의 두 배미만의 수입), 하(가족수에 따라 빈곤선 이하의 수입) 3그룹으로 나누었다. 음식군 분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사용된 음식군 분류법에 따라 분류하였고, 모든 음식의 섭취량은 1인 1일당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9.1)를 이용하였다. 성별 음식군별 섭취량은 1998년과 2001년 사이 큰 변화는 없었고, 다만 음료 및 차류의 섭취량이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음식군은 남성의 섭취량이 많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빵류 및 과자류, 죽 및 스프류, 음료 및 차류, 과일류를 많이 섭취하고, 1998년에 비해 2001년도에는 찜류, 전·적 및 부침류, 볶음류, 튀김류, 나물류, 김치류, 우유 및 유제품류 등의 여성 섭취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탕·찌개 및 전골류, 주류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음식군별 섭취량을 보면 음식군의 전체섭취량은 1998년과 2001년 모두 30~49세가 가장 높았다. 주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으로 조리한 전·적 및 부침류, 볶음류, 튀김류는 1998년, 2001년 모두 주로 7~12세, 13~19세의 10대 그룹에서 섭취량이 높게 나타났다. 1998년과 2001년 모두 음료·차류와 주류는 20~29세에서 섭취량이 가장 높았으며 밥류, 국·탕·찌개 및 전골류, 김치류는 비율상으로 65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1998년, 2001년 모두 '상' 그룹은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음식군의 섭취량이 가장 높았고 '하' 그룹은 밥류, 면 및 만두류, 국·탕·찌개 및 전골류, 김치류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섭취음식과 그에 따른 조리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연령그룹과 경제수준의 '하'그룹은 다양하지 못한 섭

취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10대의 연령층은 전체적인 섭취량이 많고 서구적인 조리법을 사용한 음식섭취가 높게 나타나는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섭취량을 알아보았을 때 각각의 그룹이 선호하는 식품과 조리법을 사용한 음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영양불량의 위험인자가 각각 다를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므로 음식섭취의 형태 변화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각 그룹의 식생활과 관련된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음식섭취 모니터링이 요구된다.